

“하나의 바다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함께 지켜요”

테라사이클-세이브제주바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 위해 손잡는다

- 테라사이클, 3 월 22 일 물의 날 기념해 사단법인 세이브제주바다와 업무협약 체결
- 테라사이클의 재활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이브제주바다가 수거한 플라스틱이 물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



[(왼쪽) 테라사이클 한국지사 총괄 이지훈 본부장 (오른쪽) 사단법인 세이브제주바다 한주영 대표
이번 업무협약식은 환경을 위해 현수막과 협약서 출력을 생략하고 전면 디지털화했다.]

(2021 년 3 월 22 일)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전문기업 테라사이클이 3 월 22 일 물의 날을 맞아 사단법인 세이브제주바다와 손잡고 해양 플라스틱의 지속적, 체계적 재활용에 앞장선다.



테라사이클은 지난 19 일 세이브제주바다와 해양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방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테라사이클 한국지사 총괄 이지훈 본부장, 세이브제주바다 한주영 대표를 비롯해 각 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향후 활동에 대한 비전 및 계획을 공유했다.

세이브제주바다는 제주도에 기반을 둔 단체로, 제주도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나아가 우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 년 설립 이후 시민들과 함께 연안정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해양 플라스틱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테라사이클은 이들의 활동이 수거 활동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물질 재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및 봉사활동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테라사이클 한국지사 총괄 이지훈 본부장은 “테라사이클은 그간 세이브제주바다가 진행해 온 진정성 있는 해양환경 보호활동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 샴푸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한 글로벌 사례와 재활용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 세이브제주바다가 수거한 해양 플라스틱이 수거에서 그치지 않고 재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테라사이클은 지난 2017 년 9 월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아모레퍼시픽, 빙그레, 락앤락, 이마트, 해양환경공단 등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9 년에는 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해양 환경 교육활동을 공동 진행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끝>

###

About TerraCycle

테라사이클은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폐기물 제로화에 도전하는 글로벌 재활용 컨설팅 기업이다. 한국을 포함한 21 개국에 진출해 재활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미래를 위한 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있다.

테라사이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terracycle.com/k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